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8-9페이지에 나와있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번제의 의미와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도전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레위기 1:1~9

묵상할 말씀 :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3절)

찬송 : 20장(통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회막이 완공되면서 끝났고, 레위기는 여호와께 드려야 할 다섯 가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시작된다(레 1-7장). 오늘 보게 될 번제는 다섯 가지 제사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며,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이다. 제사자는 흠 없는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제사자가 제물을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한 후, 제사자가 제물을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또한 제사자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며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제사장은 제물 전체를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 번제에는 속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1:4), 속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는 속죄제가 따로 있다. 번제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경배를 다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로 인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헌신하며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다.

도움말 :

- 회막에서(1절, 히: 메오헬 모에드): ‘약속된 만남의 장소에서’라는 의미이다.
- 누구든지(2절, 히: 아담): ‘아담’의 문자적 의미는 사람이며, 남자를 뜻하는 ‘이쉬’와 여자를 뜻하는 ‘잇쉬’를 포괄하는 표현이다.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는 규례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 예물(2절, 히: 코르반): ‘코르반’은 ‘가까이 가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카라브’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 가축 (2절): 목축업을 주로 했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축은 생계를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었기에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다.
- 번제(3절, 히: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는 ‘올라가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알라’에서 나온 말로서 제물을 태울 때 그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으며,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전체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번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것을 예표한다.
- 안수하다(4절, 히: 사마크 야도):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는 행동을 말하며, 이 때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제물로 드러지는 짐승에 전가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속죄가 될 것이라(4절, 히: 레캅페르):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와, ‘대속물이 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각을 뜨다(5절): 제물을 조각조각 자른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과 제사자가 행하는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

1. 【관찰 질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번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어떤 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1-3, 10절)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드릴 경우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셨다. 참고로, 가축이 아니고 새의 번제일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라고 하셨다(14절 참조).

【해석 질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특정한 예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배경 설명 및 도움말 참조)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가축’을 번제물로 요구하신 이유는 번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흠이 없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그 당시에 가축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재산이었다. ‘흠이 없는 온전한 가축’은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려는 제사자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가축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치있고 소중한 예물들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었다(삼상 15:22, 시 51:16-17 참조). 자신들에게 가치있고 중요한 것을 기꺼이 드리면서까지, 즉 땀과 노력을 치르면서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경배를 드리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요구하신 것이다.

참고 사항 1) 번제물을 소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로, 나아가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제사자들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5:7 참조). 소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소를 드리지만, 그러한 경제적 수준이 되지 못하면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었고, 그것도 안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게 하셨다.

참고 사항 2) 번제물은 ‘누구든지’ 드릴 수 있었다.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리는데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었다.

참고 사항 3) 번제물로 수컷만을 드리게 하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수컷이 암컷보다 더 가치있기 때문이라는 견해와, 수컷이 대표성을 띄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거울 질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특정한 번제 예물에 담긴 의미는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번제물로 드리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번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구약의 제사자들과 동일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시간, 섬김과 같은 것들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2. [관찰 질문] 예물을 번제로 드리려는 사람은 회막 문 앞으로 번제물을 끌고 와서 어떤 행동을 해야 그를 위해 속죄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3-4절)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했다.

[해석 질문] 제사자의 그러한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16:21, 도움말 참조)

제사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 사람을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는 말을 고려할 때, 제사자의 죄가 번제물에 전가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제물의 흠 없음이 제사자에게 전가된다. 다시 말해서, 흠 없는 제물은 제사자의 흠을 떠안게 되고, 흠 있는 제사자는 제물의 흠 없음(의로움)을 떠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신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거울 질문] 구약의 번제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사자의 그러한 행동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번제에서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하면 제사자가 곧 번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물의 죽음은 곧 제사자의 죽음을 의미한다.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알고 제사에 참여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물로서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손을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심을 믿고 고백했을 때이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흠 없음(의)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연합(동일시)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쓸 것이다.

3. [관찰 질문] 회막 문 앞으로 번제물을 끌고 온 제사자는 그것을 어디에서 잡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5,11절)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석 질문] 제사자가 번제물을 잡아야 하는 곳에 대해 그러한 표현을 쓴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5, 11절)

물리적인 면에서 보면, 제물을 잡는 장소는 번제단 북쪽이다(11절).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자에게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하심으로써 번제드리는 예식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거울 질문】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 모형이라고 할 때, 그곳에서 번제물을 잡으라는 말씀은 예배와 관련하여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물리적인 면에서 특정한 장소, 혹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심과 마음이 주변 공간이나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각자가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을 잡아 드린 것과 같이, 예배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또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이다.



말씀 살기

*인도자는 아래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각자가 나눈 후에는 그 말씀을 한 주간 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자.

1. 번제에서 제사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제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예배자인 당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번제는 제사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제사자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었다. 번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장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제사자의 역할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했다. 이것은 번제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예배에는 예배 인도자와 참여자가 있다. 예배 인도자를 제사장에게, 예배 참여자를 제사자에게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 인도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제사자인 예배 참여자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제사자가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이, 예배자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제사자가 흠 없는 제물을 골라 그 위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잡고 각을 뜨고 더러운 내장을 씻은 것과 같이, 예배자는 흠 없는 예물을 준비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통회하는 상한 마음을 지니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의식을 지니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다음 예배 시간에 이러한 예배자의 자세를 의식하면서 참여해 보자.

2.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위해서는 제사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했다. 제사장은 제사자에게 번제를 드리는 절차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배에서도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예배와 관련한 리더십을 잘 발휘함으로써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자.